

“공기업·출연기관 실태조사 확대를”

박용근 도의원, “경진원, 도덕적 해이 극심 순수 연봉 제외 소득, 2474만원에 달해”



으나 다른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다른 한 팀장의 2021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1,355만원이었고, 순수 연봉을 제외한 소득이 연봉의 절반가량인 2,474만원이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의 간부(팀장급)직원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서 외부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유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4급 팀장급 직원 18명의 2020년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고 1,430만원이었고, 다음은 1,166만원, 842만원 순이었고 최하는 397만원이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진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진원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겸직수입과 시간외수당, 외부강의수입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간외근무 임금이 과도한 시간외 수당 지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1,430만원이라는 거액의 시간외 수당을 받은 이 팀장의 주말 근무 내역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 홍보 준비, 잔무처리, 바이셀준비, 소셜벤처서류 검토, 자료 검토, 제도전 선발 준비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말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정도였다.

이와 함께 경진원은 민원인과 청사내에서 큰 소리로 다툰 등 갑질을 한 간부 직원에 대해 송방평이 징계에 불구한 '불문경고'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도 드러났다.

경진원의 업무 처리 시스템상 팀장급 이상의 주된 업무는 스스로 기획하기 보다는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결재하거나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말에 4시간씩 유사한 근무를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 경진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가를 이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경진원은 지난 2월에 자체 '청년뉴에이브 특별감사 결과 민원처리 및 사업관리 업무소홀'로 담당 팀장에 대해서 불문경고 하였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자세한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경진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일부만 분석했다”면서 “기업 지원에 헌신해야 할 경진원 직원이 갑질하면서도 대학 강사 겸직과 외부 강의 등으로 근무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주말 등에 처리하면서 고액의 시간외 수당까지 챙기는 등 전북도의의 체제를 남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경진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전북도의 모든 부처기관의 운영실태와 대 도민서비스 실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28일 오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인 김정순 씨와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민통합 강조, 이제야 알 것 같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28일 특별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 분향한 뒤 묵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서 부인 김정순 씨와 큰 절을 올렸다.

김경수 전 지사는 방방북에 배를 띄워놓고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해 조금 알 것 같습니다고 남겼다.

김경수 전 지사는 방방북에 배를 띄워놓고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해 조금 알 것 같습니다고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서 부인 김정순 씨와 큰 절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을 받은 28일 0시 경남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량 면제돼 오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경수 전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나와 가족 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 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재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이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량 면제돼 오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뉴시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정실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의회·지역사회 발전 공헌 유공자에 표창 수여

도의회, 26명 대상 의장 표창 수여식... 인사권 독립 이후 모범공무원 처음 선발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정실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의정실에서 수여 대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범 이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정책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포상장계를 개정 올해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처음 선발했다. 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26명 중 모범공무원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김태균 주무관 등 5명, 의정

발전 유공 공무원은 전라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이관우 주무관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교육영 주무관 등 21명이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의정실에서 수여 대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 출

/김재훈 기자

전북만의 특색있는 탄소중립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 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선)는 28일 전라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북도의 RE100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과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선)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총괄 부서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 실천 방향 △전라북도 탄소중립자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너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적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한 발 앞서 전북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략적 분야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계획과 연동하는 방향 등 적극적인 전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선)은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유튜브 채널

시민들로부터 '호평'

의원들의 5분 발언

자체 편집 기법 활용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제작한 유튜브 채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4월부터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0여 편의 영상을 제작·송출했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제작한 영상은 시의회가 영상 제작 전문업체(마케팅감동)와 함께 만든 것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월별 의정뉴스 각종 인터뷰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기존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다른 의회들과 달리 자체적인 편집 기법을 활용해 시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의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

이기동 의장은 “올해 처음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재밌고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내년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28일 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 무소속 전주를 재선거 출사표

“주민 목소리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강점 내세워

김호서(56)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해 노조위원장으로서 하면서 직장인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이후 정치를 하면서 전주를 선거구에서 3선 도의원을 지냈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김 전 의장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내세웠다.

또 “이곳 전주를 선거구에서 약 28년간 거주하면서 전주와 전북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전주가 먹고 살기 편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년 4월 재선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 바꾸고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닌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본 뜻을 보여주는 선거”라며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전북 뜻을 찾아오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저는 지난 1982년 이 지역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에 입사

김 전 의장은 “저는 지난 1982년 이 지역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에 입사

/뉴시스